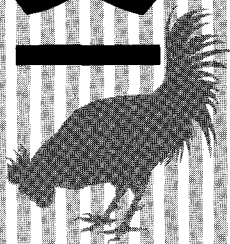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이스라엘

종란내 영양공급으로 육계 성장을 향상

이스라엘 헤브루대학의 Zehava Uni 교수팀이 부화과정에서 종란에 영양을 미리 공급함으로써 육계 성장율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바 교수팀은 부화 3일전 특수 개발한 액체 영양분을 종란에 투입시킨 결과 40일령에 2kg에 도달, 일반 육계(42일령에 2kg)보다 성장율이 5%나 향상되었으며, 폐사율 감소, 질병 저항력 강화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미국의 엠브렉스사와 기술제휴로 종란내 백신투약 기술과 함께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성장이 빨라지면서 가격하락 등의 현상으로 이러한 기술이 생산자들에게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커질것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WP)

멕시코

닭고기 생산 세계 4위로 부각

멕시코의 가금사육 수수는 3억6천만수로 산란계 1억수, 육계 2억수, 칠면조 77만7천수로 닭고기의 경우 세계 4번째, 계란의 경우 세계 6번째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최근 7년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계산업은 끊임없는 성장을 해왔다. 즉, 연간 닭고기는 5.8%, 계란은 4.8%, 칠면조는 10%의 성장율을 보여왔는데, 2000년까지 7년동안 닭고기는 무려 26%, 계란은 19%, 칠면조는 77%의 급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장은 멕시코인들의 강인한 도전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 조사된 닭고기 유통형태를 보면 재래시장(open market)이 38%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패스트 푸드 포함)이 30%, 수퍼마켓이 22%, 생닭이 8%, 2차가공품이 2%로 나타나 가공시장이 커질 경우 닭고기 산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가격보다 닭고기는 30%, 계란은 28%, 칠면조는 51%나 싸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

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P)

캐나다

처음 개최되는 VIV행사에 큰 기대

캐나다가 이달 토론토 국제회의장에서 21~23일 개최되는 VIV행사에 큰 기대를 갖고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VIV행사가 캐나다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유럽계 농장경영인이나 육종회사 관계자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행사가 개최될 토론토는 캐나다의 40%에 해당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최대의 소비지라 할 수 있다. 캐나다는 2005년까지 닭고기 관련산업은 5%, 계란산업은 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닭고기는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서 58%를 생산하고 있고, 수출물량중 93%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WP)

인도네시아

미국 닭고기 관세율 200%로 올려야

최근 인도네시아 생산자들이 미국산 수입 닭고기에 대해 200%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수입 관세는 5%인데, 지난 1995년 2,000톤에 불과하던 수입량이 지난 2000년에는 14,017톤으로 대폭 증가하는가 하면 덩핑을 자행하면서 가격을 큰 폭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생산자들은 물론 부화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M)

중국

VIV China와 Agro-Foodtech China 동시개최

오는 4월 24~26일 중국 북경 중국국제전시회장에서 개최될 VIV China 행사가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규모를 확대, 농축산식품전(Agro-Foodtech China)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두 대회는 서로 다른 일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양 주최측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회로 이끌자는 판단아래 같은 기간에 개최기로 합의를 도출해 냈으며, 따라서 이번 대회는 축산생산에서부터 가공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며,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각국의 투자단들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WP)

인도

뱀독을 제거해주는 계란 추출물

최근 인도에서는 뱀에 물릴 경우 신속히 독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제독제(制毒劑)를 계란에서 추출하는 실험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이 성공할 경우 보다 싼가격에 제독제를 대량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동안 항독작용을 하는 제독제를 말의 피에서 추출하여 ASV(제독제의 일종)를 생산해 왔다. 말의 피 1리터에서 추출되어 생산되는 ASV는 계란 50개에서 같은 양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PI)